

# 광주 전통시장 역사 한눈에 본다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8일~11월 5일 '광주, 장날' 기획전

전통시장은 아날로그가 숨 쉬는 공간이다. 사람의 정이 넘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었다. 그러나 근래의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물교환이라는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 정보가 교환되고 문화가 꽃피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의 시장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유물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조만호)에서는 광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깃든 전통시장의 의미를 조명해보는 '광주, 장날'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하는 전시회는 역사가 깊은 광주의 시장(양동시장, 송정장, 남광주시장)을 중심으로 장의 태동과 역할, 문화 등을 다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15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관련 자료에 얽힌 내력 등도 소상히 소개된다.

제1부 '광주, 장을 열다'에서는 오랜 상거래의 역사 속에서 태동된 시장의 기능과 변화 등을 추적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을 억제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전판과 조선 후기 장이 확산돼 가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5세기 경 우리지역 상거래 흔적인 함평 소명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정'(鐵錠·덩이쇠)을 비롯해, '관농윤음', '증보문헌비고' 등의 자료를 선보인다. 여기에는 일제강

### 태동·역할·변천사 조명

### 유물 150여점 내력 등 소개

### 포토존에 다양한 체험행사도

점기 장사를 나가는 지역민들의 상황과 소자료를 관련 자료 등이 나타나 있다.

제2부에서는 광주전을 중심으로 열린 양동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전을 흐르는 장'을 주제로 펼쳐지는 전시는 광주 큰장

작은장이 일제강점기 사동으로 옮긴 후 현재의 양동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 나와 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시작점인 광주 작은장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지원처였던 양동시장이 역사적 맥락에서 연결되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에는 3·1운동의 역사적 자료인 독립선언서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담아 나눠주었던 함지박이 중요한 사료의 근거가 된다.

또한 호남 최대 시장으로 자리잡은 양동시장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물도 전시된다. 시장 품목을 적은 기록 '간시기'(看市記)와 1940년 허름의 미술 작품 '닭 파는 노

인' 등을 통해서다.

제3부 '길을 잇는 장'에서는 조선시대 선암장이 일제강점기 송정역 부근으로 이전해 송정장으로 이어지는 모습과 경전선 개통으로 광주시민의 삶에 안착한 남광주시장을 조명한다. 특히 1970년대까지 송정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진행됐던 가마니전, 싸전, 우시장의 모습을 판승동 저울과 우시장 문서 등의 유물을 통해 더듬어본다. 또한 남광주역과 시장 풍경을 재현함으로써 1970년대 시장의 모습을 체험하도록 했다.

시장에 깃든 전설을 매개로 문화적 관점에서 장을 들여다보는 기회도 있다. 제4부 '문화가 깃든 장'은 비야장과 말바우시장에 깃든 전설을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겨무전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전설 속 유물을 함께 전시해 흥미를 일깨운다.

장에서 행해지던 공연문화의 다채로운 자료도 엿볼 수 있다. 끝배, 투전, 율놀이 등 다양한 놀이와 약장수의 공연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신명나는 문화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이러한 놀이문화는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1913송정역시장, 대인예술시장, 남광주부마치야시장 등과도 맥이 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밖에 장날의 흥겨운 풍경과 어울리는 포토존이 마련돼 추억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붓집을 이거나 지게를 지고 옛날 장사꾼이 되어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조만호 광주시립민속박물관장은 "'광주, 장날' 전시회를 통해 장날의 역사와 여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62-613-536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910년대 광주전변 장터.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 예향 10월호



## 문예 르네상스 꿈꾸는 '문화 보물창고' 남도

### 경남 사천·인천 강화로 떠나는 어촌여행

남도는 '문화의 보물창고'로 불린다. 판소리와 음식문화, 다도(茶道) 등 숭한 문화유산들이 특유의 남도문화를 형성해왔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0월호는 특집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꿈꾸다'를 주제로 다뤘다. 남도 곳곳에 켜켜이 쌓인 유·무형의 문화 자산을 비롯해 종가(宗家) 정신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전남도가 3개 분야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미술사학자 이태호 서울산수 연구소장(명지대 미술학과 초빙교수)이다. 이 교수는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진경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민중미술까지 40여 년간 한국 미술사 전반에 걸쳐 폭넓게 연구해왔다. 회화와 출신인 그는 겸재 정선 등 옛 화가들의 그림현장을 찾아 스케치를 병행하며 산수화가로도 변모했다.

기획으로 가을 어촌여행을 마련했다. 경남 사천시 대포마을의 전어잡이와 인천시 강화군 석포도 매운마을의 젓새우잡이 현장을 찾았다.

'남도 미미락'(美味樂) 여행지는 장성이다. 황룡강을 모티브로 삼아 '엘로우 시티' 프로젝트를 펼치는 장성은 사계절 노란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백양사 얘기단풍과 메기탕, 청동약오리 등 별미는 가을 탐방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음식이야기는 기자출신 '커피농부' 임영주씨를 소개한다. 고향인 담양군 금성면으로 내려온 그는 400평 규모의 하우스에 커피나무를 심어 커피체리(열매)를 수확하고 로스팅(볶는 과정)까지 커피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예향은 광주 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시리즈를 진행한다. 프롤로그를 통해 시립미술관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했다.

'책방별곡' 네 번째 탐방지는 진주 소소책방이다. 젊은 시절 콧수염을 기르고, 오토바이를 사고, 세계 책방을 투어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책방지기 조경국씨의 이야기가 신선하다.

이 밖에도 여행 칼럼니스트 노중훈의 '꿈의 여행'은 불교국가 미얀마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예인의 학력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을 다룬 대중문화 평론가 배국남의 '대중문화 X 파일' 역시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내면 속 또 다른 '얼굴'...서양화가 김성결 개인전

### 29일~10월 10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그의 그림 속 인간들은 뒤흔리고 회화화된 모습들이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의 군상들에서 작가는 인간의 '욕망'을 본다.

서양화가 김성결 개인전이 오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2·3관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지난해 금호갤러리가 진행한 유·스퀘어정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됐었다.

'two fa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간

내면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알록달록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 일그러진 형상들로 작가의 솔직한 감정을 이미지화한 작품들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가는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닌, 내면 속에 감춰진 온갖 감정들과 생각들을 일그러진 얼굴로 표현해 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지금까지 '스크래치 이후의 얼굴' 등을 주제로 세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추석 연휴 쉬는 날 없이 문을 연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치 게임'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신양파크호텔

#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